



아쉬운 작별 ... 집으로 설원휴 마지막 날인 10일 광주승정역에서 서울 용산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에 몸을 실은 귀경객이 할아버지·할머니와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 민심 잡기 '혁신 공천' 경쟁

총선 두 달 앞두고

새누리, 인재풀 많지 않아 호남 지역 대부분 전략공천할 듯

더민주, 하위 20% 포함 현역 배제·영입인사 전략공천 관심

국민의당, 신당합류 현역 11명 중 물갈이 몇명 포함될까 촉각

4월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여야의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은 야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을 잡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는 물론 정치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쟁적으로 '혁신 공천'에 나설 전망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5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6명의 외부인사 등 총 11명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후보 공천과 관련, 새누리당은 인재풀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정현 의원(순천·곡성) 등 대부분의 후보를 전략공천을 통해

선출할 전망이다. 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 박재순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대식 전 권익위 부위원장, 정승 전 식약처장, 유준상 전 의원 등을 호남 지역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민주도 지난 4일 홍창선 전 카이스트 총장을 공천위원장(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이어 10일 8명의 공천위원을 선임했다. 공천위원은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을 빼고는 전원 외부인

원호사지구 상가 평모들로 이전 ▶6면



그림편지-오광섭의 경기 가평 ▶18면

사로 구성됐다. 더민주에서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의 기준에서 하위 20% 내에 포함된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배제 여부와 외부 영입인사들의 전략공천 등이 관련 포인트다. 일각에서는 평가위 평가와 공천위 심사 등을 통한 공천 배제와 불출마 등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최소 2~3명의 더민주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민주 전략공천위원회도 지난 4일에 이어 오는 15일 2차 회의를 갖고 전략공천 지역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상당수의 지역구가 전략공천 대상 지역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4일 전운철 전 감사원장을 공직후보자자적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한 가운데 이번 주말 공천위원장 및 공천위원 인선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더민주에서 국민의당으로 합류한 호남지역 국회의원 11명(광주 6명, 전남 3명, 전북 2

명) 가운데 몇 명이 공천을 받을 것인지가 관심사다. 국민의당이 더민주와의 혁신 공천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호남 현역 국회의원들의 물갈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이 당헌으로 결정된 경선 방식은 '속의 선거인단' 제도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속의 선거인단 제도는 중앙선관위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무작위 추출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후보자 간의 토론을 실시, 선거인단이 속의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평가, 비밀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다 선거인단 구성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안심번호 여론조사 경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주승용 원내대표는 "속의선거인단 경선은 상징적으로 일부 지역구에서만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광주에서 1000~2000명의 대규모 속의 선거인단 투표와 안심번호 여론조사 경선을 병행,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철도 이어 공항도 광주·전남 소외

광주공항·무안공항 신규 투자 중단

정부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안

제출해야한다.

중합계획(안)은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권, 기타지역 등 권역별로 공항 개발 방향을 담고 있다. 서남권의 경우 무안공항을 중심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 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통합시기를 검토하고, 광주공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진행되고, 제주 제2공항도 2025년 개항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어 광주·전남권 공항의 미래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항 문제에 대해 지역 내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내고 철도, 공항 등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정부의 항공 수요 전망, 권역별 공항개발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에 대해 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각 시·도는 시·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한다. 종합계획(안)은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권, 기타지역 등 권역별로 공항 개발 방향을 담고 있다. 서남권의 경우 무안공항을 중심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 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통합시기를 검토하고, 광주공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진행되고, 제주 제2공항도 2025년 개항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어 광주·전남권 공항의 미래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항 문제에 대해 지역 내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내고 철도, 공항 등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정부의 항공 수요 전망, 권역별 공항개발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에 대해 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각 시·도는 시·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초강력 제재 ... 남북관계 완전 단절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 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8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은 목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 측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측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미사일)인 광명성호를 발사했다. 이와 관련, 한국과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공식 협의키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사는 광주
행복한 시의

글로벌 경쟁력 있는 광주!

최적의 자동차 생산 도시

대한민국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광주 자동차산업밸리 조성

제조업 위기 속?
우리의 선택은

독일에 세계적 자동차도시 슈투트가르트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광주가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패러다임을
선도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

서해안 자동차벨트 거점도시

유연한 생산 시스템

우수한 융합기술 생태계 기반

광주광역시
GWANGJU CITY